

Butadiene, 수급타이트 15달러 상승!

FOB Korea 780-800달러 형성 ... 플랜트 트러블 등 잦은 생산차질

Butadiene 가격은 6월20일 15달러 상승한 FOB Korea 톤당 780-800달러를 기록했다.

아시아 부타디엔 가격은 일본 Sanyo 플랜트의 트러블에 이어 타이완, 현대석유화학 및 Tosoh의 부타디엔 생산 차질에 따른 수급타이트로 15달러 상승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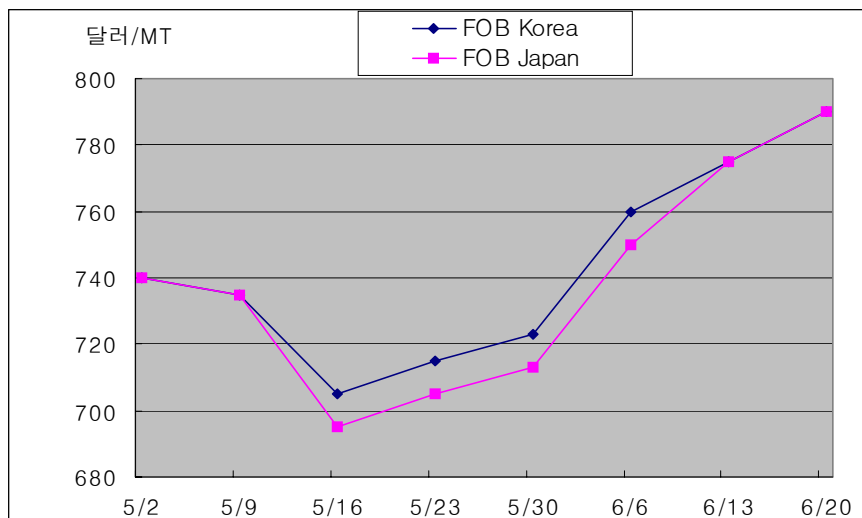
여천NCC는 7월 거래물량 1500-2000톤 가량을 FOB Korea 톤당 800달러에 판매했는데 일본 무역상들은 구매가격을 770-780달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중국의 Jinshan과 Yangzi는 7월 거래물량을 모두 내놓았고 인디아 Haldia Petrochemical은 Haldia 항구에서 첫 거래물량을 선적했다.

동남아 판매가격은 CFR 톤당 830-850달러이고 타이완에서는 830-850달러를 기록했다. 타이완 수요기업들의 시장참여는 저조한 상태이다.

부타디엔 생산기업들은 나프타 가격이 C&F Japan 톤당 245달러 수준에서 안정돼 부타디엔 톤당 365달러의 큰 수익을 얻고 있다.

Butadiene 가격추이



한편, 북서유럽의 부타디엔 Spot 가격은 FOB Rotterdam 톤당 580-590유로, 2/4분기 계약가격은 톤당 590달러를 형성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6/24>